

300-5-127. 신문조서(權榮台 외 33명 치안유지법 위반) 9

■ 權榮台 외 33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기록 수록(문서 300-5-119부터 계속)

- 安炳春은 李炳驥·安三遠과 會晤하여 노동자에게 공산주의 의식을 주입하고 선동하여 조선에서의 공산제도 실시를 목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을 협의하였고, 李載裕·李順今·李景仙과 공산제도 실시를 협의하였다. 李炳驥·安三遠은 安炳春 등과 공산제도 실시를 위한 산업별 노조결성을 협의하였다.
- 李順今은 좌익문헌을 탐독하였으며, 實兄 李觀述로부터 공산주의 교양을 받아 공명하였고, 安炳春 등과 공산제도 실시를 위한 노동조합 결성을 협의하였다. 1933년 11월경 安炳春 등과 讀書會 조직으로 여학생과 女工 등에게 공산주의 의식을 주입·선동하여 공산주의를 실행하고자 협의하였다.
- 李景仙은 좌익문헌을 탐독하고 李觀述로부터 공산주의 교양을 받고 공명하여 독서회를 조직, 여학생 등에게 공산주의 의식을 주입·선동하고자 협의한 바 있다.
- 鄭七星은 鍾紡회사의 동맹파업시 이 기회를 이용, 직공에게 공산주의 의식을 주입·선동하여 공산주의를 실행하고자 협의하였다.
- 李鉉相은 재학중 좌익문헌을 탐독·공명하여 실천운동을 한 결과, 1930년 4월 경성지방법원에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아 복역하였다. 1933년 9월 鍾紡파업을 이용, 직공에게 공산주의 의식을 주입·선동하여 공산주의를 실행할 것을 협의하였다.
- 崔小福·任澤宰·李百萬 등도 좌익문헌을 탐독하였고, 공산주의에 공명하여 실천을 위한 행동을 하였다.
- 1934년 7월 27일 安炳春 외 48명에 대한 본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되었다. 南萬熙 등 11명의 本籍照會가 있었고, 安三遠·李鉉相에 대한 전과조회가 있었다.
- 1934년 7월 27일 검사의 1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시작했다. 피조사자는 安炳春·李炳驥·安三遠·李順今·南萬熙·任澤宰·鄭龍山·辛海甲·金良山·崔小福·李仁行·邊雨植·李鉉相·李景仙·鄭七星·李百萬·金三龍 등이며, 이들 16명은 西大門刑務所에 구류되었다.
- 1934년 8월 2일 검사의 2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계속되었다. 조사대상자는 卞洪大 1회, 2회는 安炳春·李炳驥·安三遠이고, 8월 4일 2회 심문조사는 李順今·南萬熙·鄭龍山·辛海甲·金良山·崔小福·李仁行·邊雨植·李鉉相·李景仙 등에게 실시되었고, 8월 5일 鄭七星·李百萬·金三龍 등의 2회 피의자 신문조사가 진행되었다. 1934년 8월 3일 卞洪大 외 10명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서류, 물건 명칭, 인원수가 검사정에서 송부되었다. 7월 22일 작성된 卞洪大 외 10명의 소행 조사 의뢰서와 소행조사서가 수록되어 있다.
- 1934년 8월 6일 검사로부터 安炳春 외 13명의 예심청구가 있었는데, 그 활동사실이 기록되어 있다.